미국 콜로니알 주택과 실내 양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ior Style of American Colonial Housing

주저자 : 김정근(Kim, Jung-Keun)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이 논문은 2003년 울산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 결과임.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시대적 배경과 일반적 경향
3. 콜로니알 양식의 주택
4. 콜로니알 양식의 실내
4-1 일반적 경향
4-2 실내요소와 마감방식
4-3 콜로니알 양식의 가구
5. 요약과 결 론
참고문헌

(要約)

지금까지 미국의 주택은 주로 현대 양식에 대해서 알려져 있고 전통적 주택과 실내 양식에 대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미국의 전통적 주택인 콜로니알 시대 주택의 표현 특징과 실내의 요소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콜로니알 양식을 규명하고자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디자인과 제작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콜로니알 주택은 영국의 죠지안 주택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미국적 기후와 지역 특성에 조화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었으며 주택과 실내의 많은 요소가 유사한 표현 특징을 나타내었으나 그 바탕에는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디자인이 배경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택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상자형의 2층 목조의 측면 박공 지붕 형태에 비늘판벽 마감을 하였으며 전면의 가장 중요한 장식 요소로는 현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은 일실에서 2실과 4실 구조로 발전하였고 실내는 초기에는 바닥, 벽, 천장이 모두 나무를 주 재료로 하는 방식에서 점차 죠지안의 영향으로 패널, 벽지를 사용하였고 벽난로가 있는 면을 제외하고 플라스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가구는 영국 영향의 치펜데일, 퀸 앤의 의자가 대표적이었으나 지방 특색이나 종교적 영향에 의해 등장한 소박한 형태의 가구가 배치되었으며 영국 영향의 가구에도 융통성과 편리성이 고려된 디자인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Colonial House is one of the most popular styles in Americ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osely examine this style based on interior features classified by patterns and elements during America' s colonial period.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interior style of the Colonial House was, at first, similar to Europe style. It was then integrated into the Georgian style of England and affected by Palladio as time passed.

The interior style of the American Colonial House was based on rationality and practicality in concern with American weather and regions rather than imitation.

The side of the roof was clapboard and the windows arranged with symmetry and rules around the entrance hall. It was generally Palladian style and was decorated with classical details. Timber frame of the interior was based on log cabins that appeared early in the American immigration. Furniture styles such as Jacobian, Queen Ann and Chippendale were matched with unique wood-oriented details and folkways like Chest, Rush Chair and Windsor Chair. The house was also decorated with pictures, mirrors and ornaments, etc.

(Keyword)

Style, Colonial, America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최근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상품 개발과 수출로 국부를 이루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를 향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제대로 창조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많은 디자인을 도입하였다. 주택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디자인은 대부분 20세기 이후 현대적 디자인으로써 아파트와 같이 그 실용성과 편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세련된 디자인을 보급하여 현대적인 컨템포러리한 디자인이 미국의 대표적 디자인 특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양식이 솔트 박스, 콜로니알, 스페니쉬, 컨템포러리의 순으로 나타나[1] 현대적 주택을 의미하는 컨템포러리의 선호도는 가장 낮고 솔트박스나 콜로니알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양식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전통양식 주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콜로니알(Colonial)이란 식민지를 뜻하며 1620년 미국의 이주 초기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시대에 영국의 영향을 받아 유행하였던 주택 실내의 양식을 말하며 처음으로 정립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콜로니알 양식은 영국의 죠지안 양식을 도입하여 크게 유행하였으므로 자생적이기 보다 이식된 스타일로 많은 사람들이 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로니알 주택은 미국에서 상류층의 선호하는 양식이며 부유함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어 콜로니알의 유형적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미국의 주거 문화와 디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이주 초기부터 1800년대까지 콜로니알의 주택 실내의 영향 요인과 요소별 물리적 특징을 파악하여 양식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영국에서 유입된 주택양식을 도입하여 미국의 전통양식으로 정립한 미국이 어떻게 정착시키고 발전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입된 주거 문화를 갖는 우리나라 주택 디자인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실내외부의 요소별로 나타난 표현 특징을 파악한 결과는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디테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지금까지 디자인 양식에 관한 역사적 연구에서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건축, 실내, 가구 등 각 분야별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므로 실내외부의 상호 긴밀한 관계가 있는 주택에 대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갖기가 어려웠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주택에 관해 오랜동안 변화 발전된 콜로니알의 영향 요인과 그 흐름을 파악하고 둘째, 콜로니알 주택 실내의 요소별 특징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콜로니알 양식의 전체적 경향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주택의 구조, 공간구성과 실내의 바닥, 벽, 천장, 벽난로, 계단, 창, 문, 가구, 조명, 장식품 뿐 아니라 마감방식과 색채 등 요소에 대해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문헌 고찰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역사적 연구에서 미국은 신고전주의시대에 등장하고 있다. 신고전주의시대부터 산업화 이전까지 미국의 대표적 양식은 일반적으로 18세기를 전후하여 콜로니알과 페데랄(Federal) 양식으로 분류하고 있다[3]. 그런데 콜로니알의 시기는 1776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넓게는 캘리포니아가 합병된 1848년까지로 말하기도 한다[4]. 이와 같이 오랜 동안 지속된 콜로니알 시기로 인해 그 양상은 다양한 변화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가 윌튼(Sherrill Whilton)[5]은 이민 초기의 1608년부터 1720까지의 시기를 초기 개척기로 1720년부터 1790년까지를 죠지안(Georgian)[6]기, 1790년부터 1820년을 후기 죠지안기또는 페데랄기로, 1820년부터 1860년까지를 그리스 리바이벌 시기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존 파일(John Pile)[7]은 1610년부터 1800년까지 전체를 영국 디자인으로부터 유래한 주택 실내 디자인의 시기로 정의하여 이를 초기 식민지양식, 미국식 죠지 양식, 후기 식민지 양식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가구 양식 변화에 기준을 두는 경우 에드거 매퓨(Edgar de N. Mayhew)[8]는 1607년부터 1675년까지를 초기 17세기 양식이라고 하였으며 1675년부터 1715년까지를 후기 17세기 양식으로, 1715년부터 1750년까지를 퀸앤(Queen Ann)양식, 1750년부터 1810년까지를 치펜데일(Chippendale) 양식, 1785년부터 1815년까지를 페데랄 양식, 1810년부터 1830년까지를 엠파이어 양식으로 구분하면서 이 시기 이후에는 대량생산 시대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전환기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콜로니알의 시대는 넓게는 1600년대 초기부터 1820년까지로 볼 수 있겠으나 1800년 이후에는 미국 혁명에 의한 국가 건립을 상징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진 페데랄 시기와 중첩되므로 비록 후기 죠지안의 특징을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페데랄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콜로니알의 시기를 이주 초기부터 1800년대 정도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

1) Ernesto G. Arias, The Meaning and Use of Housing, Brookfield U.S.A., Avebury, 1993, pp.162-163

2) 건축문화연구회, 미국의 주택과 건축, 서울: , P.6

3) 김정근, 홍형옥, 서양의 주택과 실내의 양식, 서울: 경춘사, 2002, p.49
이연숙, 실내디자인양식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pp.108-128.
배만실, 장식미술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pp.330-336.

4) 건축문화연구회, 미국의 주택과 건축, 서울:건설도서, p.5

5) Whiton, Sherrill, Elements of Interior Design & Decoration, Philadelphia, Lippincott Co. 1970, p.286

6)죠지안이란 17세기부터 18세기 영국의 죠지 왕조 시대에 유행한 주택 실내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양식은 이태리 건축가 팔라디오의 고전주의에 영향받은 영국의 크리스토퍼 렌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영향 미친 새로운 주택과 실내 양식을 말한다. 김정근,홍형옥, 서양의주택과 실내양식, 경춘사, pp.49-59

7) Pile, John,홍승기역, A History of Interior Design, 서울:seowoo, pp.156-164

8) Mayhew, Edgar N., American Interiors, N.Y.:Charles Scribners, 1980, pp.152-168

2. 시대적 배경과 일반적 경향

미국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으로부터 신대륙을 찾아 건너온 필그림에 의해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넓은 대륙 특성에 따라 지역에 따른 이주민의 특성을 나타내었고 지역 조건의 차이는 점차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이어져 초기 주택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주로 플라이머스(Plymouth)에 도착한 영국 이주민의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영국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치하에 불행한 정치적 문제로 이주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그림(Pilgrims)과 퓨리탄(Puritans) 들과 같이 종교적 문제로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북부는 종교적 특성이 매우 강하였으며 독립된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작은 규모의 타운으로 정착하고 발전하였고 주민들은 간소한 생활조건에 만족하고 살았다. 북부지역의 초기 산업은 동물 가죽을 교역하거나 어업, 조선과 같은 것이었으며 주택에 있어서도 소박하고 목재를 이용한 간소한 주택이 지어졌다. 17세기 후반부터는 버지니아(Virginia)와 뉴잉글랜드(New England) 지역으로부터 많은 수의 영국인이 정착하기 시작하여 미국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게 되었으며 영국 식민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영국 영향이 지대해졌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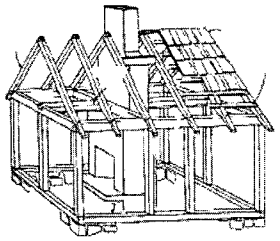
17세기말부터 18세기초에는 산업과 상업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도시가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지역으로부터 새로이 이주한 이주민 중에는 가구제조업자나 공예가와 같은 전문인이 포함되어 호화로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영국으로부터 이니고 존스(Inigo Jones)와 크리스토퍼 렌 경(Sir Christopher Wren)의 전통적 건축형태가 도입되고 인쇄술의 발달과 건축 빌딩 관련 패턴 북(pattern book)의 수입으로 클래식한 고전주의 건축 디테일이 목수와 건축가들에 의해 보급되어 영향이 즉각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영국식 팔라디오(Palladio) 디자인은 미국의 깁스(James Gibbs), 스완(Abraham Swan), 랭글리(Batty Langley) 등의 디자이너에 의해 채택되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대부분 디자인 책에 의해 보급되었으므로 식민지 어디에서나 유사한 양식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디자이너의 독창성은 거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영국 이주민, 영국 식민지 정책의 강화, 경제적 안정과 기술발달, 영국의 죠지안 양식의 보급은 점차 이주민의 다양한 특성이 영국 영향의 디자인 특징으로 통합되고 지방 고유 특성과 결합되어 콜로니알의 독특한 주택과 실내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혁명기 이후의 미국은 후랭클린 워싱턴(J. Washington), 제퍼슨(T. Jefferson)과 해밀톤(J. Hamilton) 등의 영향으로 프랑스 영향을 받았으며 유럽의 제품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보다 세련된 주택과 실내 디자인을 만들어 나갔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느린 변화를 나타난 콜로니알시대의 경향은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는 영국식 팔라디오에 영향을 받은 디자인으로 함축된다고 하겠다.

3. 콜로니알 양식의 주택

미국은 이주 초기 벽돌과 플라스터의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까닭에 나무를 이용해 주택을 지었다. 그러나 이들 재료가 여유 있게 된 이후에도 주택 건립의 대표적 재료로 목재를 사용하였다. 콜로니알 주택은 구조에 있어서도 나무를 이용한 지주구성체계(timber frame system)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영국의 색슨(Saxon)시기부터 전해내려 온 하프 팀버(half-timber)나 홀 팀버(whole-timber)의 구조 방식을 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주택은 무거운 기둥, 대들보(girders),와 도리(beam)의 골격 구성으로 조립되었으며 이를 장부촉 이음으로 잇고(mortise), 은못(dowel)과 열장이음(dovetail)으로 맞추어 연결하는 방식으로 건립되었다. 기둥 사이의 공간에는 가느다란 장대로 채웠으며 오크와 같은 두꺼운 판재를 안과 밖의 벽에 부착하였다.



<그림 1> 콜로니알 주택의 팀버 후레임(timber frame) 건조 방식
돌쌓기로 벽난로를 만들고 굵은 기둥과 큰보를 걸어 세트로 세웠다.

17세기 초반의 콜로니알 주택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으로 구성되었고 하나의 벽난로를 이용하여 요리와 난방을 해결하였다. 점차 중앙에 굴뚝이 있는 두 개의 방을 가진 주택으로 발전하였으며 주택의 방 하나에는 부엌, 식당과 거실의 기능을 겸하였고 다른 방은 전체 가족의 침실로 사용되었다. 현관 홀은 주택의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입구에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사다리나 계단이 설치되었다. 실내의 중앙에는 돌로 만든 굴뚝이 서 있고 하나의 벽난로가 실내를 반으로 나누는 파티션의 역할을 하였다. 각방에 벽난로는 난방과 취사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개구부는 각방을 향해 넓게 열려있는 형태를 띠었다. 두 방 사이의 벽난로의 측면 공간에는 보통 옷, 음식을 놓아두는 선반이나 벽장(cupboard)이 설치되었다.

18세기 들어 중앙에 하나의 굴뚝을 가진 4개의 방을 가진 구조의 주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벽난로는 각방의 대각선 코너에 설치되었다. 점차 전면에 드러나는 두 개의 굴뚝을 이용하여 각 굴뚝이 앞뒤의 두 개 방을 난방 하는 방식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주택 내부는 두 개 방을 가로지르는 중앙

9) 황혜성외, 미국인의 역사, 서울: 비봉출판사, p.56

10) Cummings, A, Lowell, The Framed house of Massachusetts bay,1979, pp.5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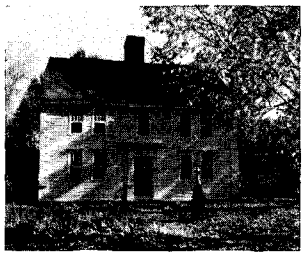
의 통로가 설치되었다. 입구를 중심으로전면의 방은 홀과 팔

<그림 2> 콜로니알 주택 평면의 변화

러(parlor)나 서재를 배치하였고 뒤에 2개의 침실로 구성되는 공간배치의 방식은 콜로니알 주택의 기본형이 되었다.2개의 침실로 구성되는 공간배치의 방식은 콜로니알 주택의 기본형이 되었다.

두 방 구조의 주택은 주로 후면에 방들을 추가하여 확장하였으며 이 경우 뒤쪽으로 연장된 공간의 지붕을 아래로 덮기 위해 측면 박공의 한쪽이 길게 연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유형의 주택을 솔트박스라고 불리웠다[11].

콜로니알 주택의 전체적 외관은 단순한 상자형의 2층 목조주택이었고 지붕은 측면 박공(side gable)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락 활용을 위해 천장을 꺾어 높여준 꺾인 지붕(gambrel roof), 모임지붕(hipped roof)이나 박공 지붕(pedimented roof) 등이 사용되었다. 초기 주택의 지붕에는 처음에는 굴뚝이 지붕 한 가운데 섰으나 공간 구성의 변화에 따라 두 개의 굴뚝으로 인해 전면은 대칭형을 띠게 되었다.



<그림 3> 콜로니알 주택의 전면

주택 전면은 비늘판벽(clapboard)으로 마감하였으며 죠지안의 영향으로 전면 양쪽 끝에는 귀돌을 부쳐 장식하기도 하였다. 비늘판벽은 두꺼운 나무 판재를 수평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윗쪽의 판재가 아래를 덮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주택 전면이 겹쳐진 판재로 만들어짐에 따라 외부로 인한 기온 변화는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된 판재의 폭은 대단히 커서 나무의 밑둥에서 자른 경우 판재의 폭이 때로는 90㎝를 초과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초기 주택의 재료는 주로 떡갈나무를 주로 사용하였고 소나무(Pine)는 나중에 사용되었으며 그 위에 칠로 마감하였으나 일반 주택에서는 마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파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색으로 변하여 따뜻하고 짙은 색을 띠었다.

초기 주택의 창문은 유리창의 크기가 작고 그 수효도 적으며 비대칭으로 설치하였으나 점차 창문을 수평열로 배치하였으며 중앙에 현관문을 설치하여 전면에 대칭성을 나타내게되었다.

11) 건축문화연구회, 앞의글, p.26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창문은 죠지안 양식의 영향을 받아 상하로 슬라이드(slide) 시키는 새시(sash)창문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는 목재 창틀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전면 구성과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지붕에는 지붕창(domer)이 설치되었고 창 위쪽의 린텔(lintel)은 직선형의 코니스나 박공 형태로 장식하였다. 창살은 점차 가늘어지고 유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위, 아래 두 짝으로 구성된 유리창의 분할도 12, 9 분할에서 6 분할로 변화, 발전하였다.

실용 위주이었던 초기 콜로니알 주택은 18세기 들어 생활이 윤택해지고 팔라디오의 영향이 유입되어 현관문 주변을 장식하여 전면에 초점이 되도록 하였다. 나무틀에 패널(panel)을 붙인 문은 17세기 후반에 나타났으며 얇게 양각된 두 개의 패널을 단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현관 홀의 채광을 위해 문 상부에는 부분적으로 작은 유리를 끼우거나 문틀 위에 트랜섬(transom)이라 부른 채광용 창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18세기 들어서는 몰딩으로 장식한 패널의 문으로 발전하였으며 문 상부에는 채광창(fanlight)을 설치하였다. 수입된 패턴북에 의해 현관문과 창문의 개구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높아졌다. 문 양쪽에는 고전 양식의 기둥이나 필라스터(pilaster)로 장식하였으며 페데스탈(pedestal)을 설치하였기도 하였다. 또한 문 주위에는 돌림띠(cornice), 프리즈(frieze), 페디먼트(pediment)와 같이 고전양식 모티브를 이용하여 장식하고 문의 높이는 꼭대기까지 넓게 조각된 장식 패널로 인해 강조해 주었다.

4. 콜로니알 양식의 실내

4.1. 일반적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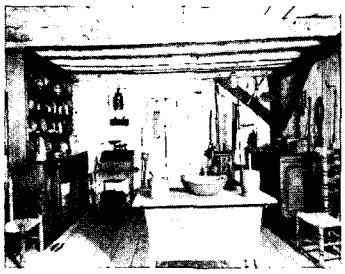
콜로니알 실내 양식은 북미에서 발생하였고 실내의 경향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영국식 팔라디오에 영향 받은 디자인으로 함축된다. 그러나 이주 초기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영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관계로 처음의 실내는 단순하고 중세적 경향을 띠었다. 17세기말에는 상업의 발달로 이주민의 상이한 풍속, 기호나 생활양식에 따라 지역 특성이 강한 절충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18세기초에는 영국의 윌리암 앤 메리(William and Marry)의 모델을 기초로 하는 특징과 퀸 앤 스타일을 따르는 경향으로 통합되었으나 후반에는 죠지안의 영향과 치펜데일 디자인이 유행되어 세련된 실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내는 영국 영향이 더 강해서 미국적 특징이 뚜렷하지 못하였다.

4.2. 실내요소와 마감방식

초기 콜로니알 주택의 실내에서는 팀버 후레임 구조의 영향으로 기둥과 들보가 노출되어 항상 튀어 나와 있었다. 그러므로 주택 구조가 겉으로 드러나는 천장이 실내 장식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커다란 들보는 천장의 중심 부분에서 연장되

었으며 이 들보의 한 쪽 끝은 돌로 만든 벽난로 위에 지지하였고 다른 끝은 벽의 기둥 위에 걸쳐졌다. 이와 같은 들보를 썸머 빔(summer beam)이라고 불리웠다. 천장에는 나무 판재로 마감하였으며 아래층의 천장 면은 위에 있는 다락방의 바닥으로 사용되었다. 실내에서 사용된 천장의 들보와 빔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상태로 마감하지 않았으나 저택에서는 들보에 칠을 하였다. 실내에서 천장은 매우 낮은 형태을 띠었으며 약 210㎝ 를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17세기 후반 들어 개방형 천장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회반죽으로 천장을 마감하여 중앙에 장미와 같은 조각을 정교하게 장식하였다.

주택의 바닥은 잘 다져진 흙바닥을 사용하거나 소나무, 떡갈나무, 밤나무(Chestnut) 판재를 깔았으며 지하실에는 벽돌을 사용하였다. 바닥에 사용된 나무 판재 폭은 대체로 불규칙하였으며 왁스나 광을 내어 마감하기보다 착색을 하거나 문질러서 마감하였다. 그러나 저택에서는 기하학적 디자인의 파케트(parquet) 로 장식하거나 체크 패턴의 돌을 사용하여 부를 나



<그림 4> 썸머 빔과 팔리사드 월의 실내

<그림 5> 한 면의 벽에 나무 패널을 설치하고 나머지 벽은 플라스터로 마감한 실내

타내고자 하였다.

실내의 벽은 초기에는 외부와 같이 두꺼운 나무 판재로 마감하였는데 수직 또는 수평으로 둘러 마감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를 팔리사드 월(palisade wall)이라고 불리웠다. 수직 또는 수평으로 부착한 판재의 연결은 은촉이음(tongue and groove)으로 만들어 판재의 수축과 틈을 막도록 하였다. 판재 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아주 간소한 장식 몰딩이 연결 부위를 따라 부착되었다. 죠지안의 영향이 커지면서 실내의 벽은 패널과 플라스터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실내의 창에는 나무로 만든 셔터를 설치하여 강한 채광을 차단하고 실내 온도를 줄일 수 있는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18세기 북미의 기본 난방은 목재를 사용하였으므로 벽난로의 형태는 통나무를 넣기 위해 개구부가 넓은 장방형으로 만들어졌다. 벽난로의 내부는 보통 석재나 벽돌을 사용하였고 벽난로 주변부는 나무로 만들었다. 대부분의 식민지 양식의 벽난로는 아주 간소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영국과 달리 벽난로 위쪽의 보(lintel)가 있는 부분이 돌출되지 않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한편 고급 주택의 경우에는 전면에 대리석을 사용하거나 고전 양식의 벽난로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벽난로 위에는 그림을 걸거나 중앙 패널에 그림을 직접 그려 넣기도 하였다.

두 방 구조 주택에서 판재로 마감하는 방식은 점차 플라스터 마감으로 교체되었고 18세기 이후 죠지안 영향의 전통적 건축 형태를 받아들이면서 벽에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장방형의 패널에 끝을 다듬는 디테일을 사용하였다. 또한 벽 마감으로 직물과 벽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매우 고가이었으므로 19세기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 부유한 계층의 주택에서만 수입 벽지를 사용하였다. 벽지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입한 제품으로써 풍경이나 고전양식의 모티브를 그린 파노라마(panorama)벽지, 중국풍(chinoiserie) 벽지 등이 유행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식 소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인디안 초상, 토착 동물이나 꽃 패턴이 있다. 이시기 수입된 직물의 종류는 실크 다마스크(damask) 새틴(satin), 브로케이드(brocade)의 견직물과 면종류인 타프타(taffeta), 머슬린(muslin), 홈스펀(home-spun) 등이 있고 직물의 패턴으로는 체크, 줄무늬, 꽃가지를 그린 패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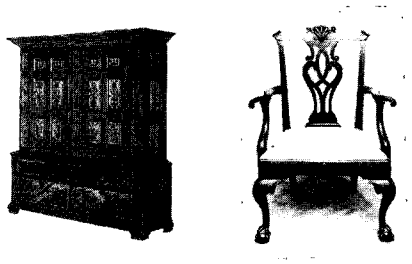
18세기 이후 실내의 플라스터 벽에 칠을 하여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색채는 두드러지는 색채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벽과 천장의 처리에 강한 대비가 되지 않도록 몰딩과 패널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황갈색, 탁한 붉은색, 엷은 회색계열, 갈색과 노란색은 이시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색채였다. 칠한 벽이나 가구 위에는 스텐실로 장식하였다.

카펫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사치스러운 것이었고 드물게 사용되었다. 오뷔송(Aubusson), 중국, 페르시안과 윌튼(Wilton) 카펫이 수입되었고 일반적으로 사용된 저렴한 카펫으로는 모사로 짠 인그레인(ingrain), 바늘로 뜬(needlepoint) 카펫, 실로 꼬아 만든 타원형 러그와 카펫 대용품인 매트(mat)가 사용되었다.

4.3. 콜로니알 양식의 가구

콜로니알 시대 가구는 처음부터 제작이 용이하고 실용적인 가구가 발달하였다. 초기의 가구는 고딕양식의 간단한 수직형의 가구가 많이 나타나고 테이블은 버팀다리 형태로 제작되었다. 영국의 윌리암 앤 메리시대 가구를 모방하여 돌려 깎기로 조각한 가구가 사용되었다. 18세기 들어서 편리함과 아름다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퀸 앤 양식의 우아하게 조각된 형태의 가구가 수직적이고 부피가 큰 중세 양식의 가구를 밀어내었다.

한편 공예가와 가구 제조업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유로운 방식과 구조의 가구를 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세틀(settle)이라는 등이 높은 긴 나무의자, 다양한 형태의 록커(rocker)



<그림 6>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컵보드와 치펜데일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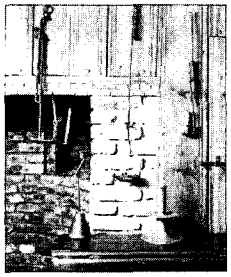
특히 '보스톤' 타입이 있으며 등받이가 사닥다리 모양으로된 의자, 화살형 등받이 의자가 나타났다. 영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특한 미국식 윈저(Windsor)의자는 대표적인 것으로써 등받이가 물레 가락 같은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가구 대부분은 칠로 마감되었고 수직적 형태에 둥근 조각 장식을 첨가해 안락함과 우아함을 나타냈다. 주택에는 콜로니알 초기부터 붙박이장(built-in furniture)이 설치되었다. 붙박이장은 주로 각 방의 선반이나 거친 구조의 침대가 제작되었고 점차 개선된 형태의 찬장(cupboard)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 이러한 붙박이 장은 품질이 좋고 내구성이 좋아 인기가 있었다.

<그림 7> 퀸앤 의자와 하이보이가 있는 죠지안 영향의 세련된 콜로니알 실내

18세기 중엽부터는 영국의 치펜데일 양식의 가구가 크게 유행되었고 프랑스의 로코코와 이태리 바로크 양식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 마호가니는 대표적인 치펜데일 의자 재료로 사용되었고 벚나무(Cherry), 떡갈나무(Oak), 자작나무(Birch), 단풍나무(Maple)과 호도나무(Walnut) 등, 지역에서 나는 재료들로 가구가 제작되었다. 유럽으로부터의 숙련된 공예가의 유입과 패턴북(The Gentleman and Cabinet-Maker's Director)에 의한 디자인 보급으로 가구 제조업는 빠르게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보스톤(Boston)과 찰스톤(Charlston) 등을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4.4. 조명과 장식

콜로니알 시기의 가장 일반적인 조명은 나무나 철재로 만든 촛대이었다. 촛대의 디자인은 실용적이며 기능적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작은 원반이 있는 스탠드형과 삼각대 받침이 있는 다양한 형태를 가졌다. 또 주철로 만든 벽 부착형 촛대의 경우 중심기둥이 목재로 되어있어 가능한 목재와 철재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대부분의 조명기구는 소박하고 단순한 구조를 가졌으며 샨데리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려하고 번쩍이는 형태 보다 간단하게 철을 이용한 독일 스타일의 샨데리어가 많이 나타났다.



<그림 8> 나무와 철재로 만들어 소박하며 실용적인 촛대의 조명기구

우승컵, 트로피는 18세기 콜로니알 실내를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장식품이었고 프랑스, 중국의 도자기와 영국의 은그릇은 18세기 치펜데일 스타일의 실내에 적합한 장식품들로 사용되었다. 수를 이용한 작품을 그림이나 가구에 장식하였고 퀼트, 패취 워크(patchwork)도 주요한 장식품이었으며 그 밖의 장식물로는 쉐이커 영향의 투박한 도자기, 나무로 만든 움푹한 그릇(bowl)과 같은 수공예품 들이 있다.

<그림-9> 패치워크의 콜로니알 시대의 장식품

5. 결 론

미국의 콜로니알 시기 주택과 실내의 요소별 특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콜로니알 주택 실내의 디자인은 대단히 오랜동안 느리게 발전하고 진행된 특징을 나타내었다. 주택 외부의 표현 요소는 팔라디안의 영향으로 기학적 상자형의 대칭성이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반면 실내는 매우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며 시기적으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초기는 유럽의 영향과 토속적인 특징이 절충된 소박한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후기는 토속적 경향에 영국의 죠지안 영향이 조화된 절충된 양식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콜로니알 주택 실내에 영향을 준 요인은 미국의 기후와 지역, 다양한 문화와 관습, 종교에도 있었으나 대표적인 요인은 영국식 팔라디오의 영향이라고 하겠고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기술적 발전에 의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콜로니알 주택과 실내의 양식적 특징은 목재를 그 기본 재료로 하고 실용성을 바탕으로 지주구성체계로 건립되는 소규모의 단순한 사각형의 주택으로 나타났다. 전면은 측면 박공 지붕에 비늘판벽으로 마감하여 규칙적인 새시 창문의 열과 중심의 인터블러춰 구성 요소들에 의해 화려하게 장식되는 현관문이 특징이었다.

초기의 실내 경향은 나무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였으며 들보가 노출되는 낮은 천장에 팔리사드 월 마감을 하였고 벽난로가 실내에 중심이 되는 공간구성이 특징이었다. 영국식 팔라디오의 영향을 받은 후에는 현관 홀에 대칭이 되는 2열 4개의 공간 구성 방식과 플라스터나 벽지, 직물을 이용하고 칠로 마감하는 화려한 마감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카펫과 퀸 앤 및 치펜데일 가구로 장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내 요소 중에서 양식의 변화를 주도한 요소는 공간의 구성 방식, 벽 마감 방식, 가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에도 경제적 기술적 발전이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구성 방식의 변화 과정은 1실-2실-4실 구성의 분할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벽난로의 기능성과 위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벽난로와 그 위치는 미국 주택의 평면 구성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벽 마감은 목재의 팔리사드 월, 플라스터, 수입 벽지나 직물, 패널 사용, 칠을 이용하는 장식등 실내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기후 풍토에 적응하는 특성과 영국의 디자인을 가미하고 조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가구에 있어서도 초기 유럽의 중세양식에서 영국으로부터 유입된 퀸앤-치펜데일 양식으로 유행의 변화가 나타났으나 한편에서는 윈저, 보스톤 록커나 퀘이커의 가구 등 실용적이며 지방 특색을 보여주는 토속적인 가구가 함께 사용되어 콜로니알 양식의 가구는 죠지안의 영향과 함께 토속적 가구가 절충된 양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콜로니알 양식의 주택과 실내는 지금까지 영국의 죠지안 주택 양식이 일방적으로 이식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적인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절충된 양식이라고 하겠으며 미국적 기후와 지역 특성이 조화되어 정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건축문화연구회, 미국의 주택과 건축, 건설도서,1996
- 김정근, 홍형옥, 서양의 주택과 실내의 양식, 경춘사, 2002
- 청람번역팀역, Greenhalgh, Michael원저, 고전주의?, What is Classcism, 도서출판 청람, 1995
- 배만실, 장식미술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이진현, 한국 실내공간에 적용된 서양 고전양식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 이연숙, 실내디자인양식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연숙, 주택과 실내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 황혜성외 공역, 미국인의 역사1, 비봉출판사, 2002
- Ernesto G. Arias, The Meaning and Use of Housing, Brookfield, 1993
- Calloway, Stephen, *Element of Style*, N.Y.: Simon and Schuster, 1991
- Casesasca, Ettore (ed.) Quigly, Isabel(Trans.), *History of the House*, London:William Collins Sons & Co, Ltd, 1997
- Cummings, A. Lowell, The Framed Houses of Massachusetts Bay, Cambridge, Belknap Press, 1923
- David Hicks, *Wallpaper a history*, New York: Rizzoli, Inc,1981
- Davis, Sam(ed.), *The Form of Housing*, N.Y :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77
- Mayhew, Edgar N., American Interiors, N.Y. : Charles Scribners, 1980
- Eligaceth T. Halsey. *Book of Decoration*, Philadelphia ; The Curtis Publishing Co, 1950
- Fleming, John. *Dictionary of the decorative arts*, Harper & Row, 1986
- Gilliat, Mary. *Le grand Livre De La Decoration*, France Loisirs, 1988
- Gilliat, Mary, *Period Style*, Lond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0
- Henrietta S. Churchill. *Classic Georian style*, London : Collins & Brown, 1997
- Lawrence, Richard Russell and Teresa Chris, *The Period House*, London:Butler and Tanner Ltd, 1998
- Leon de Groer, *Decorative arts in Europe 1790-1850*, New York, Rizzoli, In, 1988
- Martin & Judith Miller, *Period Detail*, Crown Trade Paperbacks, 1987
- Pile, John, 홍승기역, A History of Interior Design, Seowoo
- Whiton, Sherrill, Elements of Interior Design & Decoration, Philadelphia, Lippincott Co. 1970